

- 주요 뉴스: 미국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둔화. 최근 물가 흐름에 부합
 - ECB 늦 위원, 연내 1~2회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도 경계
 - 중국 인민은행, 임시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시행. 유동성 관리 강화 등이 목적
 - 일본은행, 임금인상은 경제 전반에 확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기대를 시사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파월 의장 증언 전망, 양호한 기업실적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2/4분기 기업실적 발표 기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프랑스 정국 불확실성 등으로 약보합
 - 환율: 달러화지수는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소폭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 증언 앞두고 거래량 감소하며 약보합 마감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81.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4.0원, 0.1% 상승). 한국 CDS 강보합

		7/8일	7/5일	전일대비			7/8일	7/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572.9	5,567.2	+0.10%	국채 금리 10y	미국	4.28%	4.28%	-0bp
	유럽	516.43	516.60	-0.03%		독일	2.54%	2.56%	-2bp
	중국	2,922.5	2,949.9	-0.93%		영국	4.11%	4.13%	-1bp
	일본	40,781	40,912	-0.32%	CDS 5y	한국	35bp	35bp	+0bp
	한국	2,857.8	2,862.2	-0.16%		중국	58bp	60bp	-2bp
환율	달러지수	105.00	104.88	+0.12%	위험 지표	EMBI+	-	400	-
	유로화	1.0824	1.0840	-0.15%		VIX	12.37	12.48	-0.88%
	엔화	160.83	160.75	-0.05%		WTI유	82.33	83.16	-1.00%
	위안화	7.2681	7.2683	-0.00%	원자재	구리	462.2	465.9	-0.78%
	원화	1,383.1	1,381.3	-0.13%		금	2,359.1	2,392.2	-1.3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둔화. 최근 물가 흐름에 부합

- 뉴욕 연은의 6월 조사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연율)은 3.0%를 기록해 전월(3.2%) 대비 하락했으며, 이는 3월 이후 최저. 이번 결과는 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둔화 추세를 나타낸 것에 부합. 3년 및 5년 기대 인플레이션(연율)은 전월비 상승 및 하락(각각 2.8%→2.9%, 3.0%→2.8%)
-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연준으로 하여금 물가 추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
-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간 23만명의 신규 취업자 수가 필요하다고 분석. 다만 이는 이민자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이며, 결국에는 장기 평균(월간 7만~9만)에 다시 회귀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Morgan Stanley, 미국 주요 주가지수의 10% 조정 가능성이 상당한 편

- 마이클 윌슨 스트래티지스트는 지금부터 대선 전후 시기까지 주요 주가지수가 10%의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 대선과 통화정책, 그리고 기업실적 관련 불확실성이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연말 주가가 현 수준보다 높을 확률은 20%~25%에 불과하다고 첨언.

■ ECB 늦 위원, 연내 1~2회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도 경계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늦 위원은 향후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경로가 예상에 부합한다면, 연내 1~2회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는 적절하다고 언급. 다만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이 남아있어 경계의 자세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 유로존 7월 섹터 투자자신뢰, 전월비 하락. 9개월 만에 상승세 중단

- 7월 섹터 투자자신뢰는 -7.3을 기록하여 전월(0.3) 대비 하락. 기대지수 역시 1.5를 나타내 전월(10.0) 대비 낮은 수준.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프랑스 총선 및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평가

■ 독일 5월 수출 증가율, 예상치 하회. 대내외 수요 부진 등이 반영

- 5월 수출은 전월비 3.6% 줄어 전월(1.7%) 및 예상치(-1.9%) 하회. 이번 결과는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의 수요가 둔화된 결과. 다만 5월 수입도 전월비 6.6% 감소했으며, 이에 무역수지는 249억유로 흑자를 나타내 전월(222억유로) 대비 흑자 폭 확대

■ 영란은행 해스켈 위원,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 시 금리동결 지지

- 해스켈 위원은 다음 달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동결 지지를 표명할 것이며, 이는 양호한 노동수요 등으로 높은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가 나와야한다고 첨언

■ 중국 인민은행, 임시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시행. 유동성 관리 강화 등이 목적

-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은행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에서 충분히 유지하고, 공개시장조작 정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임시로 환매조건부채권(RP) 혹은 역RP를 통한 유동성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발표. 임시 공개시장조작을 시행할 경우,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 일본은행, 임금인상은 경제 전반에 확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기대를 시사

-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 국내 임금인상이 양호한 노동수요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 시장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과 향후 금리인상의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고 분석

■ JP Morgan, 금년 신흥국의 투자부적격 회사채 채무불이행 비율은 전년대 하락 예상

- 금년 신흥국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3.6%를 기록하여 전년(4.0%) 대비 떨어질 것으로 전망. 이는 투자자들의 신흥국 시장에 대한 시각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9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바 부의장, 보우먼 이사 발언. ECB 치폴로네 이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경제, 우려와 달리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긍정적 전망이 제기 - Reuters

(Global economy finds new ways to keep growing)

- 얼마 전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성장률이 강화되는 양상. 특히 일부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3.5%의 궤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팬데믹 이전 10년간 평균 수준인 3.7%에 근접할 전망(UBS)
- 이미 팬데믹 이전 성장률 수준을 회복한 미국 뿐 아니라 신흥국에도 낙관적 전망이 제기.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연율)은 금년과 내년 각각 2.8%, 2.4%를 나타내 둔화 추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IMF). 다만, 미국 트럼프 재선 가능성으로 인한 무역 마찰 및 지정학적 위기 고조 가능성, 유럽의 정치 불안정 등은 저해 요인으로 기론

■ 연준의 일중당좌대출 증가, 자금조달 시장의 위험 신호를 발신 - 블룸버그

(Key Scarcity Indicator Flashes Warning Sign for Funding Market)

- 연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일중당좌대출(daylight overdraft: 금융기관이 당일 발생하는 부족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대출)이 연초에 급증. 이는 유동성 부족 신호로, '19년 9월 자금시장이 불안정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 당시 주요 대출금리가 5배 급등했으며, 연준은 시장안정을 위해 개입을 단행
- 한편 최근 레포 시장은 '19년과 같은 극단적 상황은 아니지만, 프라이머리 딜러의 국채 보유량은 사상 최고치 수준이며, 익일물 레포 금리 또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 이러한 은행의 초과인출 추세는 향후 몇 분기 동안 유동성 상황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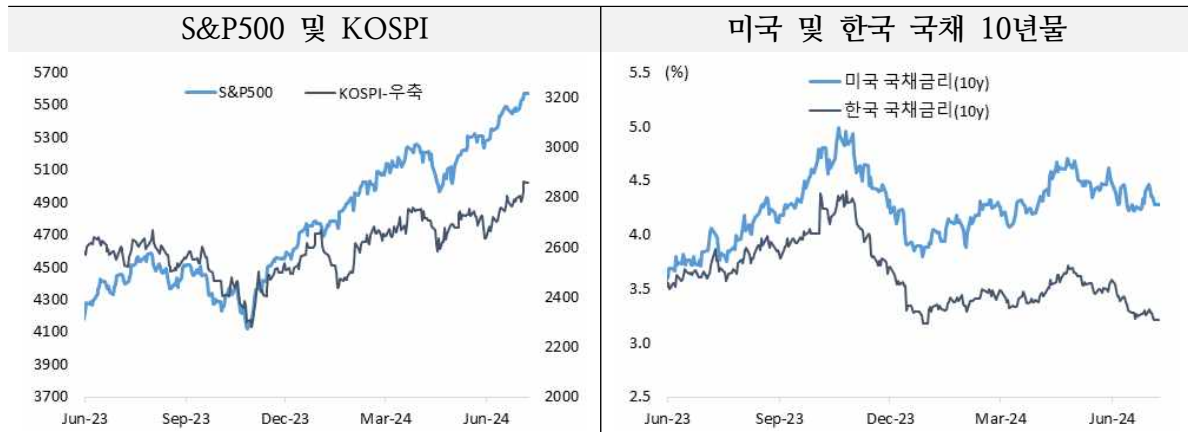
■ 미국 증시 내 우수 중소기업의 감소, 저금리 활용한 대규모 인수 등에 기인 - WSJ

(Where Have All the Good Stocks Gone?)

-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이는 과거에 비해 증시 내 수익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
- 특히 저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인수가 활발하게 진행. 반면, 수익성이 우수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그대로 증시에서 거래되는 현상이 발생. 이를 감안할 경우 미국 소형주가 포함되어 있는 ETF 등은 성장성이 탁월한 기업이 새롭게 상장되지 않는다면 미래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소지

- **미국 잭슨홀 회의, 경제 후생과 세계 금융안정 등을 논의할 필요 - Financial Times**
(What the Federal Reserve should put on the Jackson Hole agenda)
 - 통상적으로 연준은 잭슨홀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장으로 활용. 다만 금년의 경우 미국의 경제 후생과 글로벌 금융안정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 구체적으로 물가 및 실업률 전망에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점검하고, 통화정책 결정 시 단기적 측면의 경제 지표와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를 결합하는 노력이 중요. 또한 중립금리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미국 국채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위험을 공론화하는 내용도 중요
- **미국 이민자 유입, 노동력 충원·인플레이션 억제 등에 긍정적 영향 - Financial Times**
(Immigrants really do get the job done)
- **유럽의 중도 지도층, 극우정당의 무분별한 재정정책에 제동을 걸 필요 - 블룸버그**
(Europe Can't Afford the Far Right's Fiscal Policies)
- **프랑스 금융시장, 과반 정당 없는 의회의 정치적 교착 상태로 안정화될 가능성 - WSJ**
(In France, Investors Get the Centrist Limbo They Wan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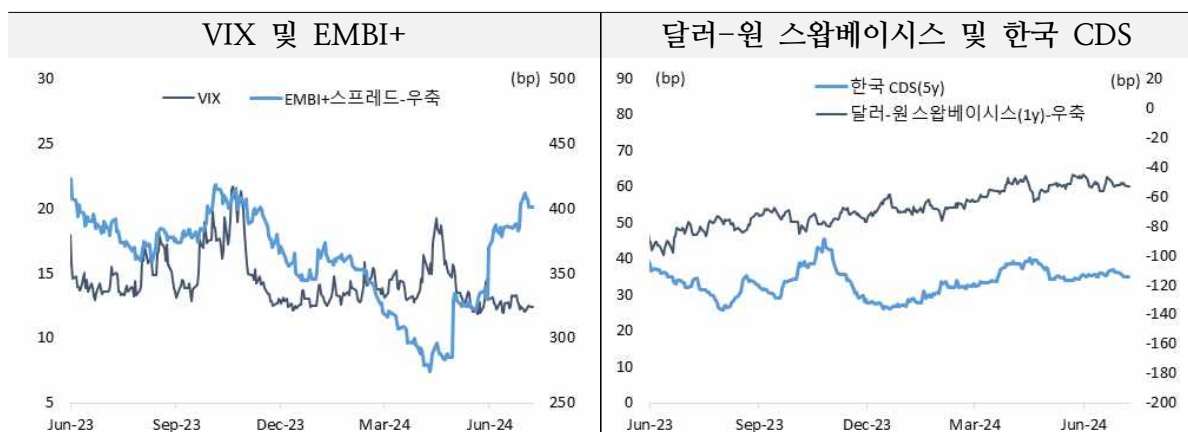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